

108개 혁신 아이디어로 경영혁신 속도 높인다

현장 아이디어 발굴로 공공혁신·행정 효율 동시 강화
창의적 제안 발굴해 조직 혁신·업무 개선 본격 추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협인증원)은 7월 6일(월)에 본원(충북 청주)에서 2026년 '경영혁신·적극행정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관의 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부서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전환, 불필요한 업무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번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는 기관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총 10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혁신성·실현 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개인 휴대폰 속 심사 사진, 이체는 우리원의 인공 지능(AI) 자산으로'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현장 심사 시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되던 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해외실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접목한 '국의 원격 근무(World Worcation)', △식품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식품공정 권위자(Author-

ity) 프로젝트',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패스(Smart-PASS) 구축', △식품안전 특화 인공지능(AI) 구축, △스포츠 교류를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 모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우수작으로 선정돼 기관의 미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해협인증원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

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혁신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배 해협인증원장은 "혁신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만들어지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기관의 소중한 혁신 자산으로 키워 국민에게 더 나은 식품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etimes.com



▲2026년 '경영혁신·적극행정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해협인증원 제공)

SG한국삼공, '사랑의 새참을 뿌리다' 캠페인 성료 농업·농촌의 소중함 알리는 대표 캠페인으로 자리매김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동우)이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 11회 '사랑의 새참을 뿌리다' 새참 전달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사랑의 새참을 뿌리다' 캠페인은 농업인 가족, 친척, 친구에 대한 사랑과 추억, 감사의 사연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는 손편지, 이메일, 영상편지, 인터넷 접수 등 전년보다 많은 280여 건의 사

연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과 감동을 자아냈다. 이번 캠페인의 본상 수상작으로는 총 3명의 사연이 선정되었다.

△ '사랑의 새참' :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며 아버지 같은 베틀목이 되어준 큰형님께 평생의 사랑을 담아 보낸 박우섭님의 사연
△ '감사의 새참' :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충남 홍성군으로 홀로 귀촌하신 아버지에게 감사를 전하는 딸 정현서님의 사연
△ '추억의 새참' : 경북 상주군의 존경하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박성희님의 사연

SG한국삼공(주) CRM팀은 본상 수상자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연 전달식을 진행했다. 수상자와 당사자에게는 대형 김치냉장고, 대형 스마트TV, 드럼세탁기, 전기압력밥솥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했으며, 축하를 위해 모인 이웃 주민들에게도 '새참 도시락'을 준비해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아울러, SG한국삼공(주)은 추가로 전국에서 9명의 '나눔의 새참' 사연을 선정했다. 전국의 지점 직원들이 직접 사연 주인공들을 방문해 전달식을 갖

고 '새참 도시락'을 추가로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아쉽게 본상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감동을 준 200명을 선정해 사연과 함께 '새참꾸러미'를 발송하며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SG한국삼공(주) 관계자는 "‘사랑의 새참을 뿌리다’ 캠페인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과 가족, 이웃에 대한 따뜻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SG한국삼공(주)은 우리 삶의 필수인 '식(食)'의 원천이자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사랑의 새참을 뿌리다'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농진원-국립식량과학원

식량 분야 우수기술 사업화 설명회 개최

양조·발효·메디푸드 등 유망기술 소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가빈아트홀에서 식량 분야 우수 유망기술을 소개하는 '농식품 테마기술 파트너링 vol.1: K-grain'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식량과학원이 보유한 양조·발효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연구성과를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진원이 올해 총 4회에 걸쳐 추진하는 '농식품 테마기술 파트너링' 릴레이 시리즈의 첫 행사로, 농촌진흥청 산하 4대 연구기관의 핵심 기술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포스터

행사에서는 국산 곡물을 활용한 양조·발효 기술, 메디푸드(맞춤형 건강식품), 가공식품 및 특수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중 소개됐다.

또한 AI 기반으로 제작된 '테마기술 자료집'이 제공돼

참가 기업들이 기술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에는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가 직접 상담하는 '파트너링 테이블'이 운영되며, AI 기술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자료 제공과 함께 기술이전 조건,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향후 파트너링 행사는 3~4분기 동안 농업과학원(농기계), 원예특작과학원(기능성 바이오소재), 축산과학원(축산 ICT) 순으로 이어졌다.

농진원 이석형 원장은 "우수 유망기술을 기업과 직접 연결해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강호동 회장, "농산물 수급안정에 만전" 당부

농협강서공관장 찾아 주요농산물 출하 동향 및 경락시세 점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7일 서울 강서구 농협강서공관장을 찾아 여름철 농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양파, 무 등 폭염과 장마에 취약한 노지 채소를 비롯해 수박 등 제철 과채류의 반입 물량과 경락시세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체계적 유통관리를 통해 기후변화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유통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관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여름철 온열질환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철저한 현장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강호동 회장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소비자 장바구니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여름철 농산물 수급 동향점검(농협 제공)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정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pe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petimes.com
 자매지: 농업경제
 발행간: 편집인
 발행처: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 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00

10년을 지나,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다.

축산환경관리원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

축산환경관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여 더욱 도약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심축산업
실현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축산환경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

데이터 기반
축산환경
개선